

간흡충으로 인한 피해

— 잉어회가 보신인가 —



엄 기 선

아직도 우리나라에
간흡충증 환자가 100만명
이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들 간흡충증 환자들은
정말로 간흡충을 모르고 있었고,
간흡충 피낭유충을 간직하고 있는
민물고기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일까?

우리나라 국민중 간흡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물고기를 통하여 간흡충이 감염된다는 것 또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간흡충증 환자가 100만명 이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들 간흡충증 환자들은 정말로 간흡충을 모르고 있었고, 간흡충 피낭유충을 간직하고 있는 민물고기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일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중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한 충분히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는 쉽게 간흡충에 감염되

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간흡충에 감염될 사람이 없을 것도 같다. 그러나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먹어서 감염되며 달리 다른 감염원이 없다는 것 또한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크게 보아 어디엔가 예방교육의 향아리가 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몇가지 중요한 상식의 허실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추울때 먹는 살오른 잉어, 붕어회가 과연 겨울 몸보신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간흡충 감염증은 매우 간단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만큼 단순하다. 즉 AIDS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을 보장할 수없는 색

스를 금해야 하는 것과 같이, 간흡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조리되지 않은 민물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즉 익혀먹기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일이야 말로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간흡충이 가장 농후한 지역인 김해에서 어떤 주민에서 들은 이야기로 “추울 때 먹는 살오른 잉어, 붕어회는 겨울 몸보신이요, 더울때 먹는 보신탕은 곧 여름 몸보신 아닙니까?”는 이야기를 식습관에 대한 탐문조사 도중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야 한겨울, 한여름을 거뜰히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양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기생충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험한 주장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잉어과에 속하는 거의 모든 민물고기(참붕어, 붕어, 잉어, 모래무지 등)는 근육내에 간흡충의 피낭유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를 먹으면 다음날 소변에 똥안 기름이 뜨는 것이 보일 정도”로 몸에 좋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민물고기의 살속에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간흡충 피낭유충 따위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지도 모를 일이다. 추위와 더위를 이기기 위한 이러한 식습관은 이미 오랜 관습이요, 타성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러한 습관상의 문제는 잘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낚연자는 언젠가 폐암에 걸릴 염려가 있다고 수없이 경고 하여도 흡연인구는 여전히 있는 것처럼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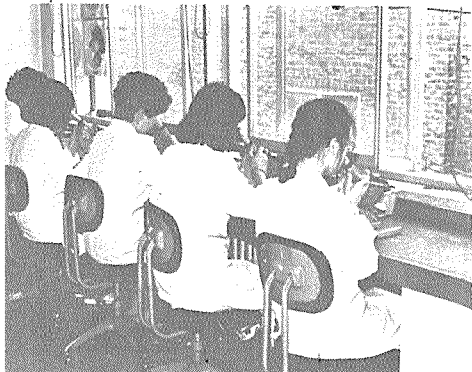


▲민물고기를 날로 한번 먹었다고 해서 꼭 임상증상이 나타날 만큼 많은 간흡충이 감염된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간흡충에 대해서 단언하자면 민물고기회는 일시적인 영양학적 이득 보다는 해가 더 많다는 점이다. 민물고기를 날로 한번 먹었다고 해서 꼭 임상증상이 나타날 만큼 많은 간흡충이 감염된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번 감염되면 성충의 수명이 10년 내외이기 때문에 점차 감염량이 많아져서 담도내에 축적되리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기생일 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던 것이 점차 많아지면 간에 병변이 진행되어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만성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피로감과 권태감이 오게 되며, 복부 팽만, 간비대 등이 생기며 심한 감염일 때는 만성설사, 부종, 복수, 위장출혈, 빈혈, 야맹증, 황달이 초래된다. 만일 참붕어와 같이 고밀도로 간흡충피낭유충이 보유되어(평균4,000개) 있는 민물고기를 일시에 다량 섭취하면 감염 후 심한 오한, 발열(40℃)이 있고 간에 통증이 있으며, 눈의 흰자위에는 황달기가나

타난다. 그리고 근래에는 간흡충감염환자일 경우에 간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8배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와 같은 증상과 잠재된 위험이 있는데 과연 잉어, 붕어회가 근본적인 몸보신이 될 수 있을까?



▲ 치료제의 개발로 인하여 오히려 간흡충에 대한 경계심이 소홀해지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치료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은 대체로 잠재된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대한 것 같다. 특히 안일한 판단이 틀린 것일 수도 있는데 한때 민물고기를 안주삼아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것은 초고추장이 독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더구나 알코올(술)이 근육속의 피낭유충을 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실험결과 이는 전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의 1/5은 낚시인구라고 할 만큼 낚시인구가 많은데 이들은 모

두 간흡충 피낭유충에 늘상 접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한 감염의 기회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흡충증이 의심되면 신속히 진단을 받아야 될 것이며 피내반응검사는 간단하기는 하나 과거에 감염후 회복된 사람이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보다는 대변검사가 신뢰성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검사결과 양성이라면 프라지퀀텔(praziquantel)로 체중kg당 25mg 씩 3회 용량으로 치료하면 거의 틀림없이 충체가 배출되므로 과거와는 달리 더이상 불치의 감염증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의 개발로 인하여 오히려 간흡충에 대한 경계심이 소홀해지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즉 간흡충에 감염되어도 과거 치료제가 없던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언제든지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이들에게는 일종의 위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치료제가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즉 치료 후에 또 감염되고 또 치료하고... 이를 반복해도 괜찮은 것일까? 한번 감염 후 회복되면 영구히 면역되는 다른 세균성 질병들과는 달리 간흡충은 감염 및 회복 후 언제든지 재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이다. 또한 치료 후 충체만 배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간흡충성충은 담관내에서 상당한 국부적 조직병변을 유발하며 충체의 기계적 및 대사성 물질에 의한 자극으로 인하여 담관점막 및 점막하층에 염증과 침윤이

일어나고, 간경화가 일어나면 치료후에도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치료제는 간흡충을 죽이는 데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지 이미 생긴 간조직의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감염의 횟수만큼 자신의 간만 상해간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민물고기를 안먹으면 안전할까?

인간의 지식은 항상 자연현상에 뒤지는 것이어서 간흡충은 1874년 McConnell 이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죽어갔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약품이 발견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고는 있지만 모든 치료약품은 보약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간흡충증의 경우 약제로 치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다. 실제로 7,000명을 치료하려면 약 1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은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민물고기를 안먹는다고 안전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물론 “거의 안전하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라는 정확뜻은 회를 먹지 않아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간흡충피낭유충은 크기가 150×90 μ m 정도이므로 현미경으로 확인될 수 있을만큼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도마에서 민물고기를 처

리할 때에 붙어있을 수 있으며 이를 소독하지 않은 채로 여기에 다른 음식물을 취급하게 되면 오염된다. 예를들면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김치를 먹을 때에도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간흡충이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은 주의하여야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김치를 먹을 때에도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간흡충이 감염될 수 있다.

타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흡연도 이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식 되어 가고 있다. 간흡충감염자도 충란을 대변으로 배출하여 결국 하천을 오염시켜 민물고기에까지 감염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차원 높아져서 간흡충감염 환자를 흡연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한 간흡충 예방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간흡충 예방에도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충남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